

한국에 관한 사회과학연구 : 한국학연구를 위한 문헌고찰

구 자 영*

〈차 례〉

- | | |
|------------------------|---------------------------|
| I. 한국연구의 근황 | III. 사회과학연구 : 1876 - 1909 |
| II. 한국연구의 발달 : 배경 및 요인 | IV. 사회과학연구 : 1910 - 1945 |

I. 한국연구의 근황

최근 몇년동안 한국연구와 관련된 기사가 국내신문과 잡지에 자주 실리고 있다. 이것은 국내외에서 고조되고 있는 한국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학술적 관심과 이에 따르는 조직적 연구가 보편화 되어 일반의 인식영역에 도달한 하나의 증거이다. “한국학” 혹은 “국학”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우리민족과 문화에 관한 연구는 그 정의에 있어서 국내외에서의 접근방법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 있어서는 우리의 옛것에 관한 연구가 위주로 되고 있어 문예부흥적 의미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1974년 5월에 문공부가 발표한 문예중흥 5개년 사업 계획에서 거론된 관계사업은 고전국역, 전적종합조사, 사료발굴연구지원, 국역자양성, 한국역대문집기사의 총람편찬, 교양국사총서의 발간과 이의 영역지원으로⁽¹⁾ 우리문화유산의 재발견 및 재조직과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민족문화추진회를 비롯하여 민족문화 연구소(고대), 동아문화연구소(서울대), 동방학연구소(연세대) 등 다수의 한국연구기관에서 계획 및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현재보다는 과거의 우리것에 집중되고 있다.

국외에서의 한국연구는 지역연구(area studies)의 일환으로 발전되고 있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조교수

다. 지역연구는 이차대전 이후 미국의 유명대학에서 세계주요지역에 관한 종합연구와 훈련계획을 설치함으로써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초기에는 역사, 지리, 인류학, 언어 및 문학이 연구의 핵심분야이었으나 점차 경제, 사회, 정치, 종교 및 예술에 까지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지역연구의 목적은 대상지역의 현재사회에 관한 탐구로써 이것은 국내의 한국연구가 과거사회를 위주로 하는것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연구방법의 특징은 주제의 경계를 초월하여 특정문제나 현상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는 소위 다학문적 접근방법((Multidisciplinary approach)이 압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이다. 국내외 어느쪽의 경우라도 한국연구는 그 범위와 방법논상 다학문적 성질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학문분야로서의 근거는 미약하다. 오히려 하나의 지역연구로 여러학문분야들 사이에 횡적관계에서 다루어 지므로써 연구의 조속한 진전이 기대될 것이다.

한국연구는 1970년대에 들어와 국내외 있어서 전례없는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전통문화와 역사의 재인식 및 재발견을 위한 국내 활동과 업적은 이미 상식화되고 있으므로 장황한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지난 몇 년동안의 발전을 요약해보면 주체성인식을 자극하기 위한 각종 문화활동의 증가, 새로운 연구기관의 설치 및 기존기구의 확충, \관계 학술활동 및 연구계획의 증진, 정부의 국학개발 5 개년 사업계획과 같은 다채로운 형태로 반영되었다.

국외에 있어서의 한국연구는 연구의 중심부가 되고있는 미국에서의 발전이 주목된다. 1967년 Ford 재단이 기증한 56만불의 기금으로 Columbia, Harvard, Hawaii, Washington 등 저명한 대학에서의 한국연구가 크게 증진되었고 미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와 학술단체협의회에 의해서 한국연구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Korean Studies of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and the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가 창설됨으로써 비로소 한국연구는 중국 및 일본연구와 같은 대열에 서게 되었다. 계속된 재정지원과 월남전쟁으로 인하여 확대된 동양연구의 일환으로 미국대학에서의 한국연구는 과거에 어문학분야에 국한되었던것이 점차 정치, 경제, 사회등 여러 사회과학분야로 연구의 범위가 넓어졌다. 한

국관계 전문학자들이 속출하였으며 그중 대다수가 미국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한국사람들이다. 전문학자들의 연구발표 및 의사교환기구로써 1963년에 창설된 Korean Studies Societr(Washington 대학에 극동 및 쏘련연구소의 일부로 부설됨)를 선두로 최근에 이르러 중요한 전문연구 기구들이⁽²⁾ 발족되었다. 국내학자들과의 학술정보교환을 위한 한국학자 초빙강연회 및 한미공동주최 학술활동⁽³⁾이 시도되었다. 박사학위논문 의 급증으로 수준높은 전문문헌이 대거생산 되었으며 *The Korean Economist*(1968-), *Asian Forum*(1968-)과 *Journal of Korean Studies*(1969-)와 같은 전문지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한국 연구는 질적 양적성장을 통하여 형성기의 미숙함을 이탈하여 체계화된 하나의 독립된 연구영역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국내외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른 한국연구의 지속적발전을 위하여 연구의 기반을 이루는 자료수집의 작업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오늘날 자료수집은 어느 학문분야이든 연구의 진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어 연구의 일부분화 되는 경향이다. 한국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선행연구의 존재 및 접근을 지시해주는 서지도구 생산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현존하는 한국연구관계문헌은 상당량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서지적 방안은 극히 산만하고 미숙한 상태에 있다. 고서의 경우보다도 20세기문헌에 관한 서지자료의 빈곤은 현재사회에 대한 연구의 비중을 고려할 때 더욱 예민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지도구의 빈곤상태로 한국관계연구인들은 선행업적의 범위와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결과적으로 기존문헌 활용상의 난점, 중복연구, 새로운 연구의 좌절과 같은 타격적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한국연구의 진흥을 위한 연구자료정비의 일부를 담당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관계연구문헌을 조사평가하며 연구의 진전과 공백영역을 제시하여 미래의 연구계획설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고의 범위는 우선적으로 1876~1945년사이에 영어로 발표된 한국에 관련된 사회과학문헌을 포함한다(단계적으로 1946~1976년 산출문헌에 관한 조사를 계획중), 조

사대상자료는 각종 서지자료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조사를 위한 문헌선정의 과정에 있어서 서지의 빈곤으로 체계적 탐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부분적으로 산재해있는 서지자료의 조각들을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서지자료의 탐색을 통하여 1950년 이전에 출간된 문헌에 관한 보다 심각한 서지상의 공백상태를 발견하였다. 문헌선정을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된 서지도구는 Underwood의 목록⁽⁴⁾ 그중보판⁽⁵⁾ 미국의회도서관 목록⁽⁶⁾, *Bulletin of Far Eastern Bibliography*⁽⁷⁾를 비롯하여 기타 몇몇의 관련서지들⁽⁸⁾⁻⁽¹⁴⁾ 포함한다.

선정된 문헌은 출판연도를 기준으로 1876-1909과 1910-1945의 두 시기로 편리상 구분하였고 이들을 사회과학의 여러분야로 다시 세분하였다. 조사대상이된 개별문헌은 자료의 논지, 중요한 공헌, 참고자료, 선행업적과의 관계 및 서지학적 특징의 관점에서 검토 및 평가되었다. 대다수의 문헌이 출판된 단행본이고 나머지는 박사학위논문(출판되지 않은것도 포함) 및 정기간행물(정간기사는 제외되었음)을 포함한다. 선정한 사회과학문헌을 검토하기에 앞서 한국연구의 발생요인과 배경을 요약하여 19세기말과 20세기를 통하여 산출된 문헌의 성질과 경향을 이해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저 한다.

II. 한국연구의 발달; 배경 및 요인

서양에서의 한국연구는 이조말 쇄국정책을 탈피하여 서양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한것을 기점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의 한국에 관한 서양의 지식은 주로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 및 상업거래를 통하여 얻어진 간접적인 것으로 와전과 오해가 빈번하였다.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산출된 서양문헌안에 우리의 풍속, 문화, 역사와 관련된 외국된 서술이 산재해있다. 초기의 서양저자들이 겪었던 언어적 장해로인한 의사소통의 난점과 기존 한국관계 서양문헌이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오해는 용납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여건은 개화기의 환란상태 자체이다. 전통과 이념이 다른 서양인들에게 당시의 부조리와 무질서는 옳바른 사실 파악을 좌절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었다. 어찌든 침략시대

였든 19세기말에 외세에 못견디어 오랜 동면에서 일깨워진 우리가 우리를 옹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외국저자의 붓을 통하여 국제지식사회에 소개된 것은 하나의 불운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당시의 외국된 반영과 뒤따른 일본의 책략적조정으로 한반도와 그 민족에 관한 서양의 오해는 최근 까지도 잔재해 왔다.

19세기의 마지막 사반세기를 통하여 전개되었던 구한국의 외교활동은 한국에 관한 서양인의 관심을 발생시키고 이것을 서구어로 기록하게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882년에 한미수호조약의 체결로 최초로 서구와의 외교관계를 수립한 구한국은 같은해 영국과 독일, 1884년에는 소련과 이태리, 그리고 1886년에는 일찍부터 비공식접촉을 꾀해오던 불란서와 각각 정식외교관계를 맺었다. 외교수립이후 외교관을 비롯하여 시장개척의 목적을 가진 외국상인 및 포교활동을 위한 서양선교사들이 급작히 쇄도하였다. 이들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찾아왔으나 그들의 생활양식과 극히 동떨어진 당시의 우리풍습과 문물을 당면하자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들의 경험담을 전달할 의욕을 느꼈다. 19세기말과 20세기초를 통하여 출간된 잡다한 서양문헌이 일반풍습묘사와 여행기의 내용을 위주로한 아마추어적 인류학문헌의 특징을 가진점으로 입증되고 있다.

서양의 한국연구는 정식외교수립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나 학술적 연구발전의 중추를 이룬 기초작업은 초창기의 선교사들에 의해 성취되었다. 1874년에 출판된 Dallet의 *Histoire de l'église de Coree*⁽¹⁵⁾는 한반도에 기독교가 전래한 이래 최초의 대저술인 동시에 후세의 학술연구안에서 거듭 인용된 최초의 서양문헌이다. 두권으로된 이 저술은 17세기초에 기독교가 전래된 시점으로부터 1866년까지의 이씨조선에서의 카톨릭교회의 발달사로서 상세하고도 완전한 기록이다. 여기에 더하여 한반도의 종족, 언어, 문학, 역사, 지리등 백과사전적 서술을 200여면에 걸쳐 제공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출판된 Gutzlaff의 한국문방기⁽¹⁶⁾는 몇개 안되는 당시의 영어문헌의 하나로 19세기말에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를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Gutzlaff의 뒤를 이어온 영국선교사들중 Ross는 그의 포교사업을 위한 신약성서의 우리말 번역을 위시하여 외국인을 위한 최초의 영어판

한글교재 *Korean English Primer* (1877)⁽¹⁷⁾와 한국역사를 저술하였다. 또 불란서의 외국선교회가 주관한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¹⁸⁾와 *Grammaire Coréenne*⁽¹⁹⁾, Scott의 독본⁽²⁰⁾, Underwood의 언어사전⁽²¹⁻²²⁾과 한글교재⁽²³⁾ Gale⁽²⁴⁻²⁵⁾과 Jones⁽²⁶⁾의 저술들은 한글교육에 공헌한 중요한 문헌들이었다. 초기의 선교활동은 그 본연의 목적 이외에 조직적인 한글연구를 비롯하여 다른 여러분야 연구에 있어서도 선두적 역할을 담당하여 한국연구를 발전 성장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III. 사회과학연구 : 1876—1909

19세기말의 정식의교수립이후 서양에서의 한국연구는 미약하고 국한된 규모이기는 하나 계속 성장해왔다. 초기의 외교관, 상인, 선교사 및 여행자 위주의 저자들이 점차 전문학자들로 대체됨에 따라서 저술의 내용의 질적향상과 연구범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언어, 역사, 사회풍습의 연구로부터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지리등 다양한 사회과학주제로 확대되었다. 서양에서의 한국연구는 미국과 소련이 두개의 대립되는 중심점을 이룬다. 19세기말 이래로 이 두나라가 한반도와 지속해온 특수한 역사적관계에 더하여 1945년 이후 보다 심각한 정치적 대립으로 인하여 한국에 관한 양국의 관심은 어느정도 평형을 유지해 왔다.

Shulman⁽¹⁴⁾의 조사에 의하면 1877~1969년 사이에 서양어로 발표된 한국관계 박사학위논문은 모두 509편에 이르고 있는데 그중 240편이 미국, 100편이 소련, 40편이 독일, 10편이 불란서, 7편이 영국에서 각각 산출되었다. 박사학위논문의 학술적권위를 인정한다면 미국은 20세기 한국연구의 중심점이 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생산된 240편의 박사논문을 분석해보면 역사관계자료가 90편, 경제 50편, 외교 50편, 교육 47편으로 사회과학의편중이 나타난다. Shulman 조사이외에 *Bibliography of Journal of Asian Studies* (연간목록)⁽⁷⁾와 같은 대표적 문헌목록에 근거하여 국외에서 산출된 대부분의 중요한 한국관계 사회과학문헌이 영어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1. 역사*

역사는 언어연구와 사회풍습 묘사와 더불어 19세기말을 통하여 서양 저자들의 몇개 안되는 관심분야 중 하나이었다. 한국 역사를 다룬 최초의 영어문헌은 Ross의 *History of Corea*⁽²⁷⁾로써 서양사회에 한민족을 소개하는 일종의 백과사전적 저서이다. 1122B. C.-1876 A.D. 까지의 연대순 역사적 고찰이며 저술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는 대부분 한문체의 중국문헌이다. 최초의 역사문헌이라는 의의가 있을뿐 내용의 대부분은 차후로 생산된 역사저서에서 흡수되었다. 19세기말에 출판된 또 다른 업적은 Griffis의 *Corea, the hermit nation*⁽²⁸⁾이며 취급된 시대적 및 내용상의 범위로보아 Ross의 것과 대등소이다. 단지 민속이야기를 포함하여 한국문학을 부분적으로 첨가한점이 내용의 차이점이다. 그러나 사관(史觀)설정에 있어 Ross는 중국의 영향을 강조하는 반면에 Griffis는 일본의 영향력을 주장하였다. Ross는 중국과 한국생활의 실제경험을 가졌으나 Griffis는 한국을 한번도 방문한적이 없는 일본연구의 전문가로써의 관점과 편견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Griffis의 저서는 때마침 중일전쟁과 노일전쟁으로 인한 동아시아에 관한 확대된 관심으로 서방세계에 널리 선전되어 1911년에 9째판(개정증보판)의 출현까지 보았다. 이것은 일본문헌에 근거하였다. 저자가 한국연구에 관해 가졌던 학술적 관심은 그가 1929년에 Rutgers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한 한국자료⁽²⁹⁾를 통하여 엿볼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한반도내의 정치적변동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Hulbert의 *Passing of Korea*,⁽³⁰⁾ McKenzie의 *Tragedy of Korea*⁽³¹⁾와 같은 자유와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한민족에 관한 동적적 역사해설자료와 더불어 한국근사대를 취급한 잡지, 신문기사, 보고서 등 잡다한 문헌이 산출되었다. 가장 중요한 업적은 말할것도 없이 Hulbert의 *History of Korea*⁽³²⁾이다. 이것은 한국문헌에 근거한 최초의 영어자료이자 국내저명한 역사가의 저작과 동급류의 표준역사 문헌이다. 저술의 시대적 및 내용상의 범위, 접근방법, 그리고 저자의 권위에 있어 Ross와 Griffis의 역사를 능가한다. 또 사관에 있어서도 Hulbert는 한국민족이 그 기질 및 언어학적 특징에 있어 중국이나 일본과 현저히 구별되는 월등한 문화족속임을 주장하였다.

두권으로된 Hulbert의 저술은 2333B. C에서 1904년 까지의 한반도역사를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로 구분하여 취급하였다. 참고문헌으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동사강요, 동국통감등 한국역사 연구의 기초자료들과 기존중국, 일본 및 서양문헌들도 포함한다. 저자는 오랜 한국생활을 통하여 한글을 완전히 답습하였으며 역사연구 이전에 *Korean Repository*와 *Korea Review*와 같은 잡지에 한국어어, 문학 및 문화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여 한국연구의 권위를 소지하였다. Hulbert의 역사는 C. N. Weems의 해설 및 논평과 최신 한국관계자료 목록을 첨부하여 1962년에 전문(全文)이 새로 출판되었다.⁽³³⁾

아직도 이 저서의 우월성과 권위는 도전되지않고 있으나 사실상 지난 70여년간의 역사에 대한 공백으로 인한 노화현상과 최근 활용되고 있는 역사연구상의 새로운 연구방법의 부재는 어쩔 수 없는 단점이 되고있다.

2. 외교관계

이 시대에 생산된 외교관계문헌은 대부분이 조약 및 협정의 내용으로 정부간행물, 외교보고서 또는 조약내용집서의 형태로 존재한다. 역사연구에 비교할 수 있는 외교관계 종합연구는 결핍되어 있다. 구한국의 외교연구를 위하여서는 중국이나 일본의 외교사를 대신 참작하는 것이 문헌공백에 대한 해결책이 되겠으나 대개 경우 저자의 주관심 지역에대한 편협적 해설로 통일성이 결려되고 극히 산만하게 다루어졌을 뿐이다. 한일관계자료는 상당량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일본정부가 한반도의 내정간섭을 정당화 시키려는 목적으로 조선총독부와 일본정부에 고용된 서양저자들을 동원하여 계획한데 기인하고 있다.

Allen의 *A chronological index*⁽³⁴⁾는 서기 1년으로부터 20세기까지 한반도 외교사의 연혁으로 19세기말에 찾아온 최초의 미국선교사의 저작이다. 연혁에 더하여 1876~1901년 사이에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의 목록, 1876~1899년 사이에 서울에 파견되었든 외국영사 및 외교관의 명단, 및 구한국의 세무장과 외무담당자의 명단이 첨부되어있다. 저자는 Griffis의 *Corea*를 상당히 인용하였다. 1901년에 초판, 1903년에 증보판, 그리고 1904년에는 *Korea, fact and fancy*의 새로운 서명으로 저자의 한국민속이야기

번역을 결드린 재판이 간행되었다. 한중관계를 다룬 Rockhill의 *China's intercourse with Korea from the XVth century to 1895*⁽³⁵⁾는 한반도의 역사적 관계에 대하여 정치적 위치, 법률 및 일반사회 풍습을 묘사하였다. 주로 중국문헌과 소수의 서양문헌에 의존하였다. 저서출판이전에 대부분의 내용은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1881)과 *American Anthropologist*(1891)안에 발표되었었다. 저자는 한중조약집⁽³⁶⁾의 편집인이기도 하다.

3. 법률

구한국의 법률 및 정치문제는 초기의 한국연구에 있어서 극히 미약한 관심의 대상으로 역사문헌의 일부로 다루어졌을 뿐이다. 이시대 생산된 법률관계 문헌으로 연구가치를 인정받을만한 것은 Wilkinson저자인 *The Korean government*⁽³⁷⁾ 정도인것 같다. 19세기말에 제물포(현재 인천)주재 영국부영사로 봉직 한 저자는 기존영문자료에 근거하여 서구문물도입의 결과로 일어난 정치 및 사회적 개혁을 주제로 1894년 이전의 법률과 행정조직, 1894~1895년 사이에 재조직된 정부구조 및 정부의 재조직에 영향을 준 법안과 결의안을 연대순으로 취급하였다.

4. 경제문제

구한국의 경제문제는 정치나 법률과 같이 소외된 분야이었다. 19세기말과 20세기초를 통하여 대량으로 생산된 한반도문물에 관련된 일반묘사 및 여행기자료와 소수의 중요한 역사문헌 안에서 부분적이며 피상적 서술만이 있을 뿐이다. 경제관계문헌은 개인저자의 저술에서 제외되었으나 구한국 재무담당기관자료, 미국영사보고서, 영국의무성 보고서, 상해중국세관 보고서 및 당시에 구한국과 외교관계를 가졌던 외국정부의 문서 등 공식 문서자료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이들 공식자료들은 무역 및 산업권에 관한 당시의 규정과 한국자연자원에 관한 단순한 정보를 제공할 뿐 한국 고유의 수공업이라든지 일반경제상황에 관한 묘사는 배제하고 있다.

5. 일반묘사 및 여행기 종류

한반도와 그 민족에 관한 백과사전적 지식을 제공하는 일반묘사 자료는

1876~1909년 사이에 출판된 한국관계 서양문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9세기말에 한반도를 방문한 서양인들은 대부분 예비지식이 없이 왔으며 그들의 생활양식과 판이한 우리의 문물을 대하자 이것을 기록하려는 의욕과 함께 때마침 서양에서 동양에 관한 일차적 지식의 요구가 컸으므로 여행자들의 경험담을 출판하기에 극히 용이한 여건이 존재하였었다. 더욱이 이런 종류의 저술은 특수한 학문적 훈련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대부분이 설화형식의 문물묘사로 나타났다. 묘사의 범위는 사회풍습, 언어, 종교, 예술, 민속이야기를 비롯하여 지리, 역사, 경제상황등 다각적 양상을 포함하였다. 수삼의 저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단순한 여행기이며 저자에 따라서 동일한 풍습과 사실에 관한 주관적 해석이 달라져서 와전과 오해의 예도 상당수에 달한다.

일반묘사를 주제로하는 여행기중 중요한 최초의 작품은 Oppert의 *A forbidden land*⁽³⁸⁾로 1860년대를 통하여 수차 한반도를 방문한 저자의 실제경험을 토대로 당시의 풍습과 범절, 종교생활, 언어, 한국인의 생김새, 지하자원 등을 선명하게 묘사고 있다. 저자의 관찰을 뒷받침해주기 위하여 기존 서양문헌을 참고하였다. 당시의 서울과 변두리의 지도 및 외국인을 위한 일상한국어해설이 부록으로 첨부되었다. 19세기말에 한반도 전역을 여행한 인천주재 주한영국영사 Carles는 그의 *Life in Korea*⁽³⁹⁾ 안에서 그가 보고 들은것에 대한 생생한 묘사와 함께, 한국지도 및 그가 여행한지역에 관한 안내서를 포함시켰다. 중요한 참고문헌으로 Griffis의 *Corea*와 왕립지리학회(Royal Geographical Society)의 연구논문이 지적되었다. Carles의 것과 때를 같이하여 출판된 Lowell의 *Chosen, the land of morning calm*⁽⁴⁰⁾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한국의 인상을 소개하였다. 극히 피상적인 묘사를 통하여 한국의 기후, 지리, 자연환경, 사회풍습과 여건, 종교, 예술을 취급하였고 부록안에서 당시의 한국인구와 지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1886년에 구한국왕실 영어학교의 영어교사로 내한한 Gilmore의 *Korea from its Capital*⁽⁴¹⁾과 1891년에 영국 왕립지리학회에서 파견된 Cavendish와 Gould-Adams에 의한 *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⁴²⁾은 둘

다 작가들의 실제경험에 근거한 일차적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Bishop 의 *Korea and her neighbors*⁽⁴³⁾ 역시 저자가 1894~1897년 사이에 4 번씩이나 내한한 경험을 토대로 하였으며 한국생활 전반에 관한 극히 상세한 묘사와 함께 이를 보조하기 위한 도해자료, 선교사업 및 외국무역에 관련된 통계, 그리고 노일조약의 원문을 포함하고 있다. 활용된 참고자료로는 각종 기존 영어문헌에 더하여 당시 영향력 있는 각계 인사와의 친분으로 획득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 자료도 포함되었다 한다. 19세기말의 작품으로 그 권위와 정확성을 오래 인정받고 있는것은 Gale의 *Korean Sketches*⁽⁴⁴⁾ 이다. 그의 9년간의 한국생활에서 얻은 경험, 관찰 및 해설만을 근거로 하였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의 종교의 위치와 발달경로 및 선교사의 업적에 관한 논평은 중요한 공헌의 일부이다.

1900년 이후에 산출된 일반묘사자료는 전시대의 것보다 다소 세련된 형식과 다양한 접근방법을 활용하였으나 대상범위와 전반적 경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Hamilton의 *Korea*⁽⁴⁵⁾ 는 한국생활에 관한 간략한 묘사에 더하여 노일전쟁의 가능성에 관한 신문기자로서의 견해와 구한국의 경제 및 무역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였다. Hamilton의 작품과 같은 해에 출판된 Taylor의 *Koreans at home*⁽⁴⁶⁾ 과 Underwood 여사의 *Fifteen years amont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⁴⁷⁾ 은 기존자료와 작가자신들의 경험에 근거한 한국생활에 관한 전형적인 서술이다. Underwood여사의 것은 작가가 민비의 주치로써 민비의 암살당시의 내막이야기를 자세히 세공하고 있다. 초창기의 선교사겸 외교관으로 21년간이나 봉직한 Allen의 *Things Korean*⁽⁴⁸⁾ 은 그의 오랜 한국생활에 근거한 저자의 생활수기와 일화를 모아놓은 집서이다. 한반도의 당시의 정치적 및 경제적 여건을 분석하였고 일본의 내정간섭에 대항하는 한국민족의 투쟁에 관한 외부의 관심과 동정을 자극하였다.

한국생활묘사자료중 Culin의 *Korean games with notes on the corresponding games of China and Japan*⁽⁴⁹⁾ 은 한국고유 민속놀이의 기원과 보급에 관한 특수한 업적이며 민속놀이에 관한 저자의 기존권위로 인하여 널리 선전되었다. 작품안에서 저자는 한국민속놀이의 고유성을 주장함으로써

써 문화적 독립성을 증명하였고 피상적인 백과사전적 정보제공으로 끝난 대부분의 다른 작품과 비교할 때 인류학관계 특수한 주제를 상세하게 취급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6. 정기간행물

여지껏 검토해온 사회과학분야 문헌의 대부분은 19세기말에 한반도를 방문하게된 서양인들에 의해서 방문의 부산물로 생산되었다. 따라서 문헌의 질적 수준상 학술적권위를 떠나서 일반상식의 선에 머물고 있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과 연구방법상 최근연구에 의해 흡수 혹은대치되어 연구자료로서의 가치가 의문스럽게 되었다. 그러나 이시대 생산된 정기간행물 문헌은 그 질, 양, 대상범위 및 접근방법에 있어 단행본 보다는 월등하다. 아마도 한국관계 서양연구가 싹트기 시작한 시기였으므로 기존연구의 결핍은 영구적가치를 지니는 장편의 단행본 생산을 불가능하게 하였을 것이다. 단편적인 정기간행물 기사가 내용상 충실성을 기할 수 있는것은 새로운 연구분야 형성기의 공통현상인바 19세기말과 20세기초를 통하여 생산된 한국연구 문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이시대에 창간된 정기간행물들은** 초창기 선교사들의 업적의 일부로 이들에 의해 연구되어진 한국어어, 문학, 역사, 종교, 예술,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한 학술논문을 주로 기재하였다. 한국연구를 위한 중요한 문헌으로 최근까지도 계속 인용되고 있다. 대표적 예로서 1892년에 Ohlinger에 의해 창간된 최초의 영어잡지 *Korean Repository*⁽⁵⁰⁾를 비롯하여 한국연구의 최고권위자였던 Hulbert에 의해 편집운영된 *Korea Review*⁽⁵¹⁾가 있다. 특히 1900년에 왕립아세아협회 한국지부의 창립과 때를 같이하여 창간된 *Transactions*⁽⁵²⁾는 오늘까지도 한국관계 학술연구문헌의 매개체로 공헌하고 있다.

IV. 사회과학연구 : 1910~1945

한일합병에서 이차대전종전까지는 한국에 관한 서양연구에 있어서 침체의 양상이 짙은 시기였다. 전시대(1876~1909)에 활발히 전개되었던 서양

인의 활동이 식민지정부의 통제를 받게되어 발전이 중단되었거나 폐쇄되었다. 물론 새로운 연구활동의 구현은 더욱더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각반한 국내사정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들어와 비약적 발전을 거듭한 서구학문의 파급적 영향으로 서양에서의 한국연구는 학술적 향상을 보게되었다. 1945년 이전에 미국내에서 발표된 한국관계 박사학위논문만도 12편 이상이 되었다.

사회과학연구에 있어서 경제학을 비롯하여 사회학, 교육학, 지리학 등의 새로운 분야가 개별되었고 여러학문들의 연구영역이 보다 뚜렷해졌다. 전시대의 선교사, 외교관 및 여행자로 구성된 아마추어 저자에서 전문학자로 연구인의 자질이 향상되는 동시에 문헌의 질적 수준향상을 가져왔다. 특기할점은 한국인이 한국관계 서양문헌의 저자로서 등장한 새로운 발전이다. 또한 문헌 생산량에 있어서도 이 시대의 논쟁적주제(한일합병과 독립운동과 관련된 국내의 상황)와 관련된 문헌이 대량생산되어 결과적으로 전시대의 것을 능가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19세기말과 20세기초를 통하여 서양인들이 보여준 한반도에 관한 호기심 위주의 질서없는 관심이 학술연구로 발전되었으며 일본통치하의 국내사정으로 인하여 국외에서 보다 주목할만한 결실을 견우게 된 것이다.

1. 역사

전시대의 한국연구중 가장 높은 학술수준을 성취한 역사연구가 이시대에 들어와 그 진전이 좌절당하게 되어 새로운 발전은 거의 없었다. 수삼의 역사문헌을 제외한 대다수의 자료가 일본통치와 항일투쟁과 같은 시대적 논쟁점을 주제로한 한반도의 정치, 경제 및 사회에 관한 서술에 그치고 있다. 저자의 목적에 따라 상반되는 해석과 견해를 제공하고 있다. 전시시대의 Griffis나 Hulbert의 업적에 도전하는 저작으로는 Longford의 *The story of Korea*⁽⁵³⁾와 Gale의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⁵⁴⁾를 들 수 있다. 전자는 중세 및 근세사에 주력했으며 한국생활의 이모저모, 풍토 및 인물에 관한 묘사도 포함하였다. 참고자료로는 Dallet, Hulbert, Ross등 저작의 기존서양문헌을 활용하였다. 후자는 취급된 시대

적 범위와 이용된 참고문헌의 성질상 Hulbert의 것과 유사하다. 단군시대로부터 20세기초까지의 한국역사이며 국내문헌에 의존하였다. Hulbert의 것과 다른점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역사상 존재했던 중대한 사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Gale의 역사는 철학적이며 인문과학적인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38장으로 된 이 책은 저자가 *Korean Mission Field* (1924~1927, V. 20~23)에 발표했던 한국사 관계기사도 포함한다. 저자는 35년간의 한국생활을 통하여 20세기 전후의 한국역사를 실제로 목격한 소수의 서양인 중 한사람이었다.

한일합병이후 일본통치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잡다한 문헌생산을 보게되었다. Ireland의 *The new Korea*⁽⁵⁵⁾는 일본통치의 목적, 방법과 결과를 상세하게 풀이한 당시의 한반도의 정치 및 경제조사 보고서이다. 대부분의 정보가 조선총독부 발행의 연간보고서와 기타 공문서에서 유래하였다.⁽⁵⁶⁾ 과학적인 통계자료에 근거하였다고 하나 이 저술의 내용은 저자의 친일 견해로에 입각한 해설을 면치못하고 있다. Brown의 *Mastery of the Far East*⁽⁵⁷⁾는 극동을 지배하는데 있어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주장하여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를 정당화 시키려는 시도이었다. 한반도의 풍토, 민족, 생활양식에 관한 일반묘사, 일본, 중국 및 소련과의 대외관계, 동양에서의 일본의 우월성을 취급하였다. 671면의 책으로 근원자료에 대한 언급이 결핍되어있다.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삼일운동을 계기로 다시 부활되어 일본통치의 부당성과 항일투쟁의 옹호를 주제로하는 새로운 종류의 문헌이 생산되었다. Kendall의 *The truth about Korea*⁽⁵⁸⁾는 삼일운동이후 불과 3개월도 안되어 출판되었는데 책의 목적을 "...in the name of Justice and Humanity ..."⁽⁵⁹⁾에 결부시켰다. 이 책은 MaKenzie의 *Korea's fight for freedom*⁽⁶⁰⁾, Grave의 *The renaissance of Korea*,⁽⁶¹⁾ Cynn의 *Rebirth of Korea*⁽⁶²⁾, Kim의 *Song of Arirang*,⁽⁶³⁾ Oliver의 *Korea*,⁽⁶⁴⁾ Rhee의 *Japan inside out*⁽⁶⁵⁾ 등과 함께 삼일운동의 진상, 자유독립의 옹호, 당시의 정치 및 사회적 상황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기의 경험, 목격 내지는 기존 문헌(서신, 공문서, 영문, 국문자료)에 의존하였다.

식민정치 36년간의 한반도의 변모를 비교적 객관적인 견해에서 분석한 학술문헌이 존재한다. Chung의 *The case of Korea*⁽⁶⁶⁾는 일본통치와 한국민족의 독립운동에 관한 상세한 기록으로 공간행물, 기존문헌 및 저자의 현지조사에 근거하였다. Grajdanzev의 *Modern Korea*⁽⁶⁷⁾는 Cairo 선언에 의한 한반도의 해방 및 독립을 계획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확한 국내 사정 파악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일본통치하의 한반도정세에 대한 조사가 위주로 되고 있으며 간략한 역사 및 지리, 상세한 경제 및 사회조사가 추가되어있다. 본문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록안에 인구 및 경제통계, 지명록, 지도, 그리고 기존문헌목록이 포함되어있다. 농업, 자연자원, 인구에 관한 중요한 정보는 저자가 1942년에 제 8차 태평양 관계연구회의(Eighth Conference of 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에서 발표한 *Memorandum on Korea's agriculture and resouces*⁽⁶⁸⁾로 부터 인용하였다.

2. 외교관계

1876~1909년을 통하여 외교연구는 소수의 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역사의 일부로 흡수되었으나 이시대에 들어와서는 독립된 연구분야로 발전되었다. 외교연구는 거의 예외없이 1910년 이전의 한반도의 외교를 취급하였다. 특히 구한국말의 외교활동과 그중에서도 미국과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외교관계 문헌은 조약내용의 집서, 일반조사, 박사학위논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10년 이전에 체결된 외국과의 각종조약의 내용을 다룬 집서자료로는 Chung의 *Korean treaties*⁽⁶⁹⁾와 Carnegie재단에 의한 *Korea: treaties and agreements*⁽⁷⁰⁾를 들 수 있다. 전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벨기에, 덴마크, 독일, 불란서, 이태리, 미국, 영국, 중국 및 일본과의 조약내용을 취급하였다. 후자는 일본, 중국 및 소련과의 조약만을 취급하였다.

한미관계는 노일전쟁 및 중일전쟁을 통하여 뚜렷해진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와 을사보호조약이후에 한국주재 미국공사관의 폐쇄로 인하여 극동에 관심있는 서양연구인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Noble의 *Korea and he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before 1895*⁽⁷¹⁾ (1930년 Univ. of California에서 인정한 박사학위논문)를 비롯하여 Dennett의 *Americans*

in Eastern Asia⁽⁷²⁾와 Griswold의 *The Far Eastern policy of the United States*⁽⁷³⁾는 1910년 이전의 한미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Harrington의 *God, mammon, and the Japanese*⁽⁷⁴⁾는 한미관계를 선교활동의 외교 및 상업적 양상과 미국의 한반도에 관한 상업투자활동과 관련하여 취급한 특수한 경제외교 문헌이다. 유명한 Allen Manuscripts와 미국 국무성 소재의 외교기록에 근거하였다.

이시대 외교연구의 절정은 Nelson의 *Korea and the old orders in Eastern Asia*⁽⁷⁵⁾라고 할 수 있다.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보완한 뛰어난 학술연구이다. 고대로부터 1910년 까지의 한반도의 대외적관계를 주제로 하는 한반도의 정치적 국제적 위치에 관한 연구이다. 원시로부터 유교제도의 확립과 19세기말에 서양문물의 도입으로 인한 전통사회의 갈등, 한반도의 국제정치사회진출 및 일본식민지화 과정을 취급하였다. 근원자료로 저자의 박사논문, 미국국무성기록과 기존서양문헌을 이용하였다. 부록 안에서 한국역대왕조표, 중국의 역대왕조표 및 외교조약과 중요한 참고자료를 포함시켰다. 이외에 Jones⁽⁷⁶⁾, McCune⁽⁷⁷⁾, Yoon⁽⁷⁸⁾의 박사논문에서도 한반도의 대외관계가 주제를 이루었다.

3. 경제

이시대 산출된 중요한 경제관계문헌이 한국인저자에 의한 자료이었다. Lee의 *A history of land systems and policies in Korea*⁽⁷⁹⁾와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⁸⁰⁾는 둘다 수준높은 연구의 결과이다. 전자는 고대로부터 1905년까지의 토지제도 및 토지소유와 관련된 각종 정책에 관한 분석이다. 역사, 지리 및 산업에 관한 간단한 서술에 이어 토지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해설과 논평을 가하였다. Univ. of Wisconsin에 제출되었던 박사학위논문으로 미국내에서 준비되었으나 한국문헌에 근거하였다. 후자는 41명의 답사연구원을 2년간 동원시켜 성취한 연구로 1945년까지 출판된 경제문헌의 정상을 차지한다. 토지활용과 농업경제에 관한 종합조사로써 시골의 교육 및 문화수준, 위생, 사회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덧붙여 제공하였다. 한국의 기후, 토질, 자연 및 인적자원, 산업, 농업의 특징, 소작제도, 임야 및 유흥지의 활용, 농사여건, 농산물의 시

장 및 가격, 농민의 경제수준 등에 관해 상세하고도 직접적인 정보제공을 하였다. 이용된 문헌은 답사결과를 중심으로 정부문서와 기존관계문헌들이다. 이연구는 미국지리학회산하의 태평양관계연구소(Institute of Pacific Relation)의 요청으로 진행되었으며 동연구소의 요청으로 南京대학과 東京대학에서 각각 진행되었던 중국 및 일본의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와 쌍벽을 이루고 있다.

20세기초의 전반적 경제상황을 서술한 자료로 Hostino가 편집한 *Economic history of Chosen*⁽⁸¹⁾이 있다. 1907~1920년 사이의 한반도 경제의 모든 양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재정, 금융 및 산업상의 개혁, 화폐의 역사, 1910년 이후에 농업, 산업, 재정, 상업 등 분야의 발전상과 특히 조선은행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부록안에 중요한 통계표와 은행법을 포함시켰다. 이것은 조선은행의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의 일부로 이 은행의 발전상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의 비중이 컸다고 볼 수 있다.

4. 사회학

사회학과 관련된 주제는 1876~1909년 사이에 출간된 문헌에서는 일반 묘사 자료안에서 흔히 취급되었던 사회풍습, 생활 및 여건묘사안에 포함되었다. 1910년 이래로 사회학 연구는 뚜렷한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Moose의 *Village life in Korea*⁽⁸²⁾는 농촌생활의 다각적양상을 묘사하여 사회학도로서의 견해와 비판을 덧붙였다. 배경지식을 위하여 농촌생활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과 아울러 역사, 지리, 및 자원에 관한 간략한 서술을 제공하였다. 10여년간의 농촌생활을 통한 저자의 관찰과 경험 및 기존문헌에 근거하였다. Wagner는 그의 *Korea, the old the new*⁽⁸³⁾안에서 서구문명의 영향을 입은 새로운 가치관과 전통적 관념과의 갈등을 주제로 한국의 문화, 사회 및 경제적 혼란 및 선교사업이 초래한 한국사회학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한때 서울의 사회복음센터의 감독관으로 봉직하던 저자는 이책의 참고문헌으로 기존서양문헌을 활용하였다.

Karl(갈홍기)의 *A critical evaluation of modern social trends in Korea*⁽⁸⁴⁾는 한국사회의 이념과 철학에 관한 연구로 사회학연구의 진전을 위한 중

요한 공헌을 하였다. 단군시대로부터 1930년까지의 광범위한 한국사회역사이다. 전통적 가치관을 분쇄한 시대적 요인과 새로 출현한 사회정의와 사고방식을 분석하였다. Univ. of Chicago에서 인정받은 박사학위논문으로 한국, 일본 및 영어문헌에 근거하였다.

5. 교육

교육연구는 이 시대에 들어와 새로 발전된 사회과학의 또하나의 영역이다. 교육관계 문헌중 선교사업에 의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가 중요한 업적으로 남아있다. Underwood의 *Modern education in Korea*⁽⁸⁵⁾는 1880년대에서부터 1923년 까지의 교육관계분야의 발전상에 관한 역사적 고찰이다. 기독교선교부의 교육사업과 이것이 한국의 일반적 교육수준을 증진하는데 공헌한점을 제공하였다. 또 식민지정부가 실시한 공립학교제도에 관한 저자의 비평적 평가와 당시의 교육여건에 관한 다각적 견해를 포함하였다. 부록안에서 당시의 국내교육 및 문화교양기관명단을 제공하였다. 연세대학교 교수로 봉직하였던 Fisher는 그의 *Democracy and mission education*⁽⁸⁶⁾에서 선교사업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교육을 통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런 "mission education"이 한국사람들의 생활태도, 양식 및 사회적 가치관변화에 준 영향을 강조하였다. 인용문헌은 기존서양본자료들이다.

중요한 교육연구는 한국인에 의한 박사학위논문으로 존재한다. Roe의 *The true function of education in social adjustment*⁽⁸⁷⁾는 공자의 가르침과 John Dewey의 교육철학을 한국의 교육풍토와 관련시켜 각각의 적응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 Kim(김활란)의 *Rural education for the regeneration of Korea*⁽⁸⁸⁾는 농촌의 교육상황, 이와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여건에 관한 논평, 덴마크와 소련의 농촌교육의 사례연구, 한국 농촌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관한 청사진 등을 포함한다.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국, 일본 및 영어문헌이 활용되었다.

6. 지리

지리연구는 새로 등장된 사회과학분야이며 S. McCune의 단독연구로 체계적 발전을 하였다. McCune은 1927~1936년 사이 평양에 있었던 한국신학

대학교(Union Christian College of Korea)학장으로 봉직할 당시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하여 연구활동을 크게 진흥시켰고 동대학교의 출판부를 1928년에 창설하여 중요한 연구업적출간에 노력하였다. 1938년에 식민지정부에 의해 폐교당한후 1941년에 그동안의 연구활동을 부활하기 위한 방법으로 Research Monographs on Korea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연구 및 출판계획으로 이것을 통해서 그의 지리학 관계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Climate of Korea*⁽⁸⁹⁾, *Geomorphology of Korea*⁽⁹⁰⁾, *Rural geographic landscapes in Korea*⁽⁹¹⁾, *Climatic regions*⁽⁹²⁾, 안에서 한국의 기후, 기상과 기상대, 지방지리에 관한 체계있는 높은수준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Climatic regions*는 그가 1939년에 완성한 박사학위논문을 출판한 것이다. 참고자료는 대부분 답사연구결과와 미국지명이사회 및 미국육군지도제작기관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7. 일반묘사 및 여행기

1876~1909년 사이에 산출된 서양문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한반도 문물과 인물에 관한 백과사전적 자료는 이시대 들어와 크게 격잡하였다. 이것은 새로 발견된 사회에 대한 초기의 무질서한 호기심이 체계적학술연구로 대치된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연구에 있어 중요한 발전이다.

중요한 자료로 Kang의 *The grass roof*⁽⁹³⁾와 *The happy grove*⁽⁹⁴⁾를 들 수 있다. 전자는 농촌의 전경, 풍습 및 사회적 변천을 선명하게 묘사한 저자의 자서전적 저술이다. 후자는 저자의 농촌에서의 어린시절의 추억을 토대로 한국어어린이들의 생활을 묘사하였고 저자 자신이 영역한 한국시를 포함하였다. 이것은 어린이독자를 위한 최초의 영어판 한국이야기로 널리 선전되었다. 외국인의 여행기로는 스웨덴 과학자인 Bergman에 의한 *In Korean wilds and villages*⁽⁹⁵⁾가 특수한 자료로 남아있다. 스웨덴 박물관을 위한 자료수집의 목적으로 한반도의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목격내지 경험한 한국생활의 이모저모와 한국특유의 자연물(새, 동물)에 관한 생생한 묘사를 포함하였다.

8. 정기간행물

19세기말과 20세기초를 통하여 한국연구의 학술적 매개체로 애용되었던

정기간행물은 1910년 이래로 극심한 침체상태에 빠졌다. 전시대에 건재하였던 대부분의 영어간행물이 폐간조치를 당했고 새로운 시도는 다각적으로 저해되었다. 국내발행의 학술잡지로는 *Korea Magazine*⁽⁹⁶⁾이 1917~1919년 사이에 존속하면서 역사, 문화 및 문학관계 학술문헌의 광장을 마련하였다. *Voice of Korea*⁽⁹⁷⁾는 미국에서 창간된 일종의 시사종합지로 때때로 역사, 민족, 문화관계 기사를 취급하였다. 다행히 왕립아세아협회의 *Transactions*⁽⁵²⁾이 계속간행되어 연구문헌생산에 공헌하였다.

1. 경향신문 : 1974년 5월 8일
2. (a) 1966년에 Association of Asian Studies안에 Committee on Korean Studies(CKS/AAS)의 설립.
 (b) 1967년에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SSRC)과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ACLS)의 공동주관으로 창설된 Joint Committee on Korean Studies (JCKS 한국연구공동위원회).
 (c) 1968년에 창설된 International Liason Committee for Research on Korea(ILCORK)는 한국공동연구위원회(JCKS)와 U. 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 lopment의 공동후원의 결과이다.
3. (a) CKS/AAS의 연차총회 및 지역세미나.
 (b) Conference on Korean Studies는 Western Michigan大学 주최로 1967년 이래로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연구발표회.
 (c) SSRC/ACLS Joint Committee on Korean Studies와 ILCORK가 주최한 한국연구관계 국제학술세미나.
4. Underwood, H. H. "A partial biliography of occidental literature on Korea" *Transactions*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XX(1931). "Supplement" *Transactions*, XXIV(1935)
5. Gompertz, M. "Bibliography of Western literature on Korea from the earliest times until 1950." *Transactions* (KBRAS) XL(1963)
6. Library of Congress. *Korea :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publications in Western langnages* Washington D. C., 1950

7. *Bulletin of Far Eastern bibliography* (1936~1940). Continued in *Far Eastern Quarterly*(1941~1946) : *Far Eastern Bibliography* (1947~1954) : and *Journal of Asian Studies*(1955~)
8. Cordier, H. *Biblitéca Sinica, dictionnaire bibliographique des ouvrages relatifs a l'empire; chinois*. 2d ed. Paris, E. Guilmoto, 1904~7. *Supplement et indes*. 1924
9. Courant, M. *Bibliographie Coréene*. 3 vols. Paris, E. Leroux, 1894~1896. *Supplement* 1901
10. Kerner, R. *Northeast Asia, a selected bibliograph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39.
11. McCune, S. *Bibliography of Western language material on Korea*. 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50.
12. Marcus, R. *Korean studies guide*. Berkely, Univ. of California Press, 1954.
13. Silberman, B. S. *Japan and Korea : a critical bibliography*. Tucson, Univ. of Arizona Press, 1962
14. Shulman, F. J. *Japan and Korea :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doctoral dissertations in Western languges, 1877~1969*. Chicago, ALA, 1970.
15. Dallet, C. *Historie de l'eglise de Corée*. Paris, V. Palme, 1874.
16. Gutzlaff, C. *Journal of three voyages along the coast of China in 1831, 1832, and 1833, with notice of Siam, China, and the Loo-Choo Islands*. London, F. Westely and A. H. Daves, 1834.
17. Ross, J. *Korean English primer*. Shanghai, 1877.
18. La Société des Missions Etrangères de Paris.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Paris, 1880.
19. La Société des Missions Etrangères de Paris. *Grammaire Coréenne*. Paris, 1881.
20. Scott, J. *A Korean manual or phrase book with introductory grammar*. Shanghai 1887.
21. Underwood, H. *Korean-English dictionary*. Yokohama 1890

22. Underwood, H. *English-Korean dictionary*. Yokohama 1890
23. Underwood, H.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Yokohama 1890
24. Gale, J. *Korean-English dictionary*. Yokohama, 1897.
25. Gale, J. *Korean Grammatical forms*. Seoul. 1893(1915년 개정판)
26. Jones, G.H. *An English-Korean dictionary*. Tokyo, 1913.
27. Ross, J. *History of Corea, ancient and modern, with the descriptions of manners and customs, language and geography*.
London E. Stock, 1891. (1880년에 초판)
28. Griffis, W.E. *Corea: the hermit nation*. 9th ed. New York Scibner, 1911, (1882년에 초판)
29. 한국자료는 책, 필사본, 공문서, 서신, 팜프렛, 크림핑, 저자의 메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Rutgers대학 도서관안에 29개의 필사본 filecases으로 정리되어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30. Hulbert, H. B. *Passing of Korea*. London 1906
31. Mckenzie *Tragedy of Korea*. London 1908
32. Hulbert, H. B. *The history of Korea*. 2vols.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5.
33. Hulbert, H. B. *The history of Korea*, edited by C. N. Weems. London, Routledge, 1962.
34. Allen, H. N. *A chronological index; some of the chief events in the foreign intercourse of Korea from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era to the twentieth century*. Seoul, 1901.
35. Rockhill, W. W. *China's intercourse with Korea from the XVth century to 1895*. London, Ulzac, 1905.
36. Rockhill, W. W. *Treaties and conventions with or concerning China and Korea*. Washington, D. C., 1904.
37. Wilkinson, W. H. *The Korean government; constitutional changes, July 1894 to October 1895 with an appendix on subsequent enactments to 30th of June, 1896*. Shanghai, Statistic Dep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1897.

38. Oppert, E. J. *A forbidden land; voyage to the Corea*. London, Low, Marstom, Searle, 1880.
39. Carles, W. H. *Life in Corea*. London, Macmillan, 1888.
40. Lowell, P. *Chosen; the land of morning clam; a sketch of Korea*. Boston, Ticknor, 1888
41. Gilmore, G. W. *Korea from its Capital*.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shing, 1892.
42. Cavendish, A and Gould-Adams, H. *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 London, G. Philip, 1895.
43. Bishop, I. L. *Korea and her neighbors; a narrative of travel, with an account of the recent vicissitudes and present position of the country*. New York, Revell, 1898.
44. Gale, J. *Korean sketches*. New York, Revell, 1898.
45. Hamilton, A. *Korea*, London, Heinemann, 1904.
46. Taylor, C. J. *Koreans at home*. London, Cassell, 1904.
47. Underwood, Mrs. L. H.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 New York, American Tract Society, 1904.
48. Allen, H. N. *Things Korean; a collection of sketches and anecdotes, missionary and diplomatic*. New York, Revell, 1908
49. Culin, S. *Korean games with notes on the corresponding games of China and Japan*. Philadelphia, Univ. of Penn. Press, 1895
50. *Korean repository (1892~1899)* Seoul, Methodist Trilingual Press.
51. *Korea Review (1901~1906)*.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52. *Transactions (1900—)* Seoul,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53. Longford, J. H. *The story of Korea*. New York, Scribner, 1911.
54. Gale, J. S.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27.
55. Ireland, A. *The new Korea*; New York, Dutton, 1926.
56. *Ibid.* p. Vi.
57. Brown, Arthur J. *The mastery of the Far East*. New York,

- Scribner, 1921.
58. Kendall, C. W. *The truth about Korea*. San Francisco, Korean National Association, 1919.
59. Ibid. "Forward"
60. McKenzie, F. A. *Korea's fight for freedom*. London, Revell, 1920.
61. Graves, J. W. *The renaissance of Korea*. Philadelphia, Jaison, 1920.
62. Cynn, H. H. *The rebirth of Korea*. New York, Abingdon, 1920.
63. Kim, San (pseud.) and Nym Wales (pseud.) *Song of Arirang: the life of a Korean rebel*. New York, J. Day, 1941.
64. Oliver, R. T. *Korea: forgotten nation*. Washington, Public Affairs Press, 1944.
65. Rhee, Syngman. *Japan inside out; the challenge of today*. New York, Revell, 1941.
66. Chung, Henry. *The case of Korea; a collection of evidence on the Japanese domination of Korea and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New York, Revell, 1921.
67. Grajdanzev, A. J. *Modern Korea*. 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44.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제목은 *Modern Korea, he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under the Japanese*로 Calumbia대학에서 1944년에 인정되었다)
68. Grajdanzev, A. J. *Memorandum on Korea's agriculture and resources*.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42.
69. Chung, Henry. *Korean treaties*. New York, Nicols, 1919.
70.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Korea; treaties and agreements*. Washington, 1921.
71. Noble, H. J. *Korea and he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before 1895*. (Berkeley, Univ of California, 1931. 박사논문)
72. Dennett, Tyler. *Americans in Eastern Asia*. New York 1925.
73. Griswold, A. W. *The Far Easter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 1938.
74. Harrington, F. H. *God, mammon, and the Japanese; Dr. Horace N. Allen and Korean-American relations' 1884-1905.* Madison, Univ. of Wisconsin Press, 1944.
75. Nelson, M. F. *Korea and the old orders in Eastern Asia.*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 Press, 1945. (저자의 박사논문은 *The international state of Korea, '1876~1910* 으로 Duke Univ. 에서 1940년에 인정되었다.)
76. Jones, F. C. *Foreign diplomacy in Korea 1866~1894.* (Cambridge, Harvard Univ. 1935박사논문)
77. McCune, George M. *Korean relations with China and Japan, '1800~1864.* (Berkeley, Univ of California, 1941박사논문)
78. Yoon, Hong S. *Korea in international Far-Eastern relations.* (Washington, American Univ. 1935. 박사논문)
79. Lee Hoon K. *A history of land systems and policies in Korea.* (Madison, Univ. of Wisconsin, 1929. 박사논문)
80. Lee Hoon K.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36.
81. Bank of Chosen. *Economic history of Chosen.* Seoul, 1920.
82. Moose, J. R. *Village life in Korea.* Nashville, Smith Lamar, 1911.
83. Wagner, Ellasue C. *Korea; the old and the new.* New York., Revell, 1931.
84. Karl, Hong K. *A critical evaluation of modern social trends in Korea.* (Chicago, Univ. of Chicago, 1934. 박사학위논문)
85. Underwood, H. H. *Modern education in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Press, 1926.
86. Fisher, James E. *Democracy and mission educ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 1928.
87. Roe, Chungil. *The true function of education in social adjustment; a comparative estimate and criticism of the educational*

- teachings of Confucius and the philosophy of John Dewey with a view to evolving a project for a system of national education which will meet the needs of Korea.* (Lincoln, Univ. of Nebraska 1927. 박사논문)
88. Kim, Helen, *Rural education for the regeneration of Korea.* (New York, Columbia Univ., 1931. 박사논문)
89. McCune, Shannon. *Climate of Korea.* Research Monograph on Korea, Series B. Nos. 3—4, Ypsilanti, 1941.
90. McCune, Shannon. *Geomorphology of Korea.* RMK Series C, Ypsilanti, 1941.
91. McCune, Shannon. *Rural geographic landscapes in Korea.* RMK Series D, No. 1 Ypsilanti, 1945. RMK Series D, No. 1
92. McCune, Shannon. *Climatic regions.* RMK Series E., Nos. 1—11 Ypsilanti, 1945 (1939년에 Clark대학에서 인정받은 박사논문)
93. Kang, Young H. *The grass roof.* New York, Scribner, 1931.
94. Kang, Young H. *The happy grove.* New York, Scribner, 1933.
95. Bergman, Sten, *In Korean wilds and villages.* Translated by F. Whyte. London, J. Gifford, 1938.
96. *Korea magazine* (1917~1919), Seoul, YMCA.
97. *Voice of Korea* (1942~1961) Washington D. C., Korean Affairs Institute.

*역사: 순수역사문헌과 구한국(19세기말)의 정치, 경제, 사회문제를 다각적으로 취급하여 특정한 주제분류가 어려운 문헌을 포함한다.

**Morning Calm(1890~1936)과 Korea mission field(1904~1941)는 종교잡지였으나 선교사들의 타분야 연구도 기재하였다.

Social science studies on Korea; a literature survey for Korean studies.

Jayoung Koo *

The present study is a literature survey aimed at providing a means to improve the bibliographic apparatuses for Korean studies. The need for a study like this has proven urgent with the promotion of Korean studies both within and without in recent years.

The study examines the social science literature on Korea produced in English between 1876 and 1945(A study is under way for literature since 1945 also). Selection of the titles for investigation was made on the basis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works confirmed after reading book reviews and examining a variety of bibliographies. Each title selected was examined in terms of its subject matter, contribution to the discipline it belongs, references cited, relations with similar works in the field, and bibliographic features. Published books, dissertations both published or not published, and periodicals are included.

Primarily a critical review it is also designed to provide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 present status of Korean studies and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Western studies on Korea.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foundations of the modern Western scholarship on Korea in the late 19th century.

*Assistant Professor, Library Science Dept., Ewha Woman's University